



습근평 귀주 고찰 시 강조

고품질 발전으로 전반 국면 총괄하는 것을 견지하고 중국식 현대화 행정에서 귀주의 새 풍채 보여주어야

채기 고찰에 동행



▲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은 귀주를 고찰했다. 사진은 17일 이후, 습근평이 검둥남주 려평현 조흥 동족마을을 고찰할 때 촌민들과 친절하게 교류하는 장면이다.

/ 신화사



▲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은 귀주를 고찰했다. 사진은 17일 이후, 습근평이 검둥남주 려평현 조흥 동족마을을 고찰할 때 신단고루에서 촌간부, 촌민대표들과 함께 화당 주변에 둘러앉아 향촌의 전면 진흥을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 신화사

【귀양 3월 18일발 신화통신】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은 최근 귀주를 고찰할 때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귀주는 서부대개발과 장강경제벨트 발전에 관한 당중앙의 전략적 포치를 참답게 락착하고 고품질 발전으로 전반 국면을 총괄하는 것을 견지하며 개혁개방을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동력으로 신심을 확고히 하고 실속 있게 일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모색하고 주동적으로 성과를 취득하여 중국식 현대화 행정에서 귀주의 새로운 풍채를 보여주어야 한다.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습근평은 귀주성 당위 서기 서린과 성장 리병군의 안내하에 선후로 검둥남주족동족자치주와 귀양시 등지를 고찰하고 조사연구를 했다.

17일 오후, 습근평은 검둥남주 려평현 조흥 동족마을을 고찰했다. 마을어구에서 화려한 민족복장을 차려입은 촌민들이 동족 가요를 부르며 총서기를 환영했다. 습근평은 동족 가요의 예술 기원과 곡조 특징, 가장 형식 등 면의 소개를 흥미진진하게 청취했다. 이어 마을 도로를 따라 동족마을의 풍모와 관광장점들을 돌아보면서 수시로 발걸음을 멈추고 삼정 주

인, 관광객, 촌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족문화전시센터에서 그는 동족의 역사, 풍속, 복식, 건축 등 특색 문화 보호전승 상황을 상세하게 료해했다. 동족마을특색산업기지에서도 그는 밀랍염색공예 과정을 관람하고 밀랍염색합작사의 고객지상주의, 품질제일 운영 리념에 대해 긍정을 표했다. 습근평은 소수민족문화는 중화문화에서 빠져서는 안될 구성부분이라고 하면서 유형의 마을, 민가, 특색 건축 풍모를 보호하고 무형의 문화유산을 전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 전환, 혁신적 발전을 추진하여 민족특색이 리용 과정에서 더욱 선명해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광채를 발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단고루에서 습근평은 촌간부, 촌민대표들과 함께 둘러앉아 친절하게 교류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총서기에게 최근 몇년 동안 마을에 일어난 기꺼운 변화들을 소개했다. 습근평은 동족마을이 이처럼 잘 보호되고 동족 군중들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백성들의 일을 잘 처리하는 관건은 농촌 기층당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당지부의 전투보루 역할과 당원의 선봉모범 역할을 발휘

하여 대중을 이끌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향촌 치리를 잘하는 데 있다.

고루에서 일어나자 촌민들은 뻘곡이 에워싸고 열렬히 박수를 치며 큰소리로 총서기에게 안부를 전했다. 습근평은 기쁘게 응답하며 동족인민들은 소박하고 근면하며 문화가 있고 지혜가 있다면서 중국식 현대화 행정에서 향촌 진흥을 더욱 잘하여 모두의 삶이 갈수록 풍요로워지기를 축원했다. 동족마을을 떠날 때 동족 군중들은 정겹게 〈동족 노래 당에 불러드리네〉를 부르며 총서기에 대한 사랑과 아쉬움을 표시했다. 습근평은 손을 흔들며 마을 주민들과 작별인사를 했다.

18일 오전, 습근평은 귀주성 당위와 정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제반 분야에서 거둔 귀주성의 성과를 긍정하고 나서 다음 단계의 업무에 대해 요구를 제기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고품질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귀주는 결심을 굳히고 과감히 탐색하며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혁신구동을 강화하고 신규 동력 에너지 전환을 통합하며 전통산업의 형태 전환과 승격을 다그치고 전략적 신흥산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디지털 경제, 신에너지 등 산업을 강화하고

최적화해야 한다. 결단력과 인내심을 유지하고 과학적으로 결책하며 정확하게 정책을 시행하고 속도와 효익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품질의 효과적인 향상과 량의 합리적인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 생태환경을 잘 보호하고 생태 우세를 발전 우세로 힘써 전환시켜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한 지방의 발전 활력은 경영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귀주는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에 적극 융합되어 지방 보호, 시장 분할, '내부 소모식' 경쟁을 견결히 타파함으로써 전사회의 창업 혁신을 위해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려면 한편으로 개혁을 틀어쥐고 고품질 발전을 제약하는 막힌 점을 뚫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간부들에 대한 교양관리를 틀어쥐고 간부들이 대국익의 봉사익식, 성신익식, 청렴익식을 증강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개방도 중요한 경영환경이다. 귀주는 서부 특혜 신통로 건설 기회를 잘 리용하고 월한 오대만구와 성유지역, 이 이중지역 경제권 건설과 적극 련결시켜 료내외의 련동, 동서 생방합 상호 지원의 전면적인 개방 구도에 주동적으로 융합해

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귀주는 자신의 실체로부터 출발하여 현성을 중요한 매개체로 하는 도시화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흥업, 강현, 부민의 일체화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현업 산업기반에 입각하여 분업협력을 중시하고 차별화된 발전과 련결고리를 형성해야 한다. 현지 실정에 맞게 현대 산간지역 특색의 고효율 농업을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시장경쟁력을 갖춘 특색주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리익련결기제를 보완하여 산업 발전에서 대중의 소득 증대와 처부를 촉진해야 한다. 농촌 저소득 인구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모니터링, 분류 지원 기제를 구축하여 민생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귀주는 역사적 바탕이 깊고 흥색문화가 풍부하며 민족문화가 다채롭다. 이러한 우세를 리용하여 문화적 자신감을 증강하고 문화 혁신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여 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민족특색마을, 전통마을, 려사문화 명촌과 명진, 혁명전쟁시기에 남겨진 흥색 옛 유적지에 대해 체계적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낡은 풍속을 고치고 문명한 새 풍조를 적극 육성해

야 한다. 문화, 관광과 체육의 융합을 심화하고 관광업태를 풍부히 하며 '다채로운 귀주' 문화관광의 새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당의 령도를 드팀없이 견지하고 당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당중앙은 전당적으로 중앙 8항 규정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기 위한 학습교양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올해 당건설사업의 중점 과제이다. 각급 당조직은 알심들여 조직, 실시하여 당원, 간부들이 정력을 증강하고 습관을 양성하도록 추진하며 우수한 기풍으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일하고 창업해야 한다. 당성, 당풍과 당규를 함께 틀어쥐고 기풍을 바로잡고 규율을 엄숙히 하며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서로 관통시켜 부패가 번식하는 토양과 조건의 제거를 꾸준히 틀어쥐어야 한다. 장정정신과 준의회의정신을 고양하여 드높은 투지로 새시대의 장정의 길을 잘 걸어 가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인 채기가 고찰에 동행했다.

하립방 및 중앙과 국가 기관 관련 부문의 책임자들이 고찰에 동행했다.

제 6 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에 길림성 11 명

최근, 문화관광부는 제 6 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 명단(942명)을 확정했다. 길림성에서는 안정방, 김창훈, 홍미숙, 오정묵 등 4명 조선족을 포함한 도합 11명 장인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 명단에 입선되었다.

문화관광부는 추천등록, 자료심사, 전문가 평가, 사회공시, 평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민간문학,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극, 국예, 전통체육놀이와 서커스(游艺与杂技),

전통미술, 전통기예, 전통의약, 민속 등 10개 분야 942명의 장인을 제 6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으로 확정지었다. 우리 성의 대표 전승인들은 전통무용, 전통회곡, 전통미술, 전통기예, 민속 등 5개 분야에서 선출되었다.

그중 전통무용에 조성해(만족, 우라만족악장, 길림성)와 백준걸[녀, 몽골족, 박무(博舞), 전고르로스몽골족자치현], 전통연극에 안정방(녀, 조선족, 길극, 길림성)과 조재하[녀,

한족, 만족신성극(新城戏), 송원시], 전통미술에 장립신(녀, 한족, 만족자수, 통화시), 전통기예에 김창훈(조선족, 민속악기 제작기예, 연변주)과 진옥주(녀, 중식복장 제작기예, 길림시)가 입선되었으며 민속에 오지강(몽골족, 몽골족혼례, 전고르로스몽골족자치현), 장문(한족, 차간호 겨울고기잡이풍습, 전고르로스몽골족자치현), 홍미숙(녀, 조선족, 조선족전통혼례, 연변주), 오정묵(조선족, 조선족백절절, 룡정시)이 입선되었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국내 다른 성(직할시, 자치구)에서는 료녕성 단둥시의 허흥행이 민속 분야의 조선족화갑례로 조선족으로는 유일하게 대표성 전승인 명단에 입선되었다.

문화관광부는 무형문화유산 전승인 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능력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며 무형문화유산을 잘 보호, 전승하기 위해 제 6 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 인정사업을 조직, 전개했다고 전했다. / 유경봉기자

교육부 중요 통지

17일, 교육부는 2025년 고등직업 교육 전문과정 설치 등록 및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지는 2025년 교육부는 국가 통제 전문과정 신설 신청을 72개 접수했는데 공안부, 사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중의약관리국 등 업종 주관부문의 련합 심사를 거쳐 그중의 전문과정 4개를 설치하는 데 동의하고 68개는 전문과정 설치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사를 통해 설치될 동意的한 국가 통제 전문과정은 전국 직업학교 전문과정 설치 관리

및 공공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통합되며 올해부터 학생모집이 가능하다.

성급 교육행정부문에 등록되고 교육부에서 종합정리한 2025년 학생모집 예정인 전문과정은 총 6만 7,898개이다. 전문과정 설치 등록 및 심사 결과는 전국 일반대학 학생모집 원천 계획 온라인 관리 시스템과 련결되었으며 각 지역은 등록 또는 심사되지 않은 전문과정을 학생모집 원천 계획 관리 시스템에 추가하고 학생모집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 인민넷-조문판